

말씀 “위로의 하나님”

우리는 오늘 먼저 천국에 가신 고인을 추모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추모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추모예배를 통해 고인의 삶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찬송하리로다”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지으셨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고 오늘도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우리가 우선적으로 할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때로 우리 삶에 고통과 슬픈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면서 항상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찬송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겠습니다.

1. 자비(공휼)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많은 환란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십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고, 세 번 태장으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거짓 형제의 위협과 광야와 바다의 위협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지만 그는 고난 속에 더 크신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비의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자녀들에게 “자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자비”는 “공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하나님을 공휼의 하나님이 곧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환란을 외면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시며 함께 고통당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공휼이야말로 모든 환란을 이기는 최고의 위로임을 고백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2. 우리의 슬픔 위로 하시는 하나님!

고인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지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에 슬픔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휼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 견디기 힘든 고통중이라도 우리 눈물을 닦아 주시며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도바울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고난 중에 슬퍼할 때 우리도 공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함께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공휼보다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사도바울이 고난 중에 공휼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통해 위로를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떤 고난 중에도 공휼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위로 받고 힘을 얻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추모예배



【추모 예배 순서】

☞ 예배를 위한 준비

상 위에 사진을 올려놓거나 촛불이나 꽃을 장식하면 좋습니다. 인도자는 상 옆에 앉거나 서고, 가족들은 그 앞에 둘러앉습니다.

인도 : 담담교역자(또는 가족 중)

예 식 사 ----- 인 도 자
고(故) ○○○씨(혹은 장로, 권사, 집사, 성도)의 ○○주기 추모일을 맞이하여, 추모예식을 시작합니다.

신 앙 고 백 ----- 다 함 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 송 ----- 4 8 8 장 ----- 다 같 이

1.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2.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닷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3.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 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4.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뵈을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엿이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 도 ----- 말 은 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고(故)○○○씨(장로, 권사, 집사, 성도)를 하나님께서 불러 가신 날을 맞아
그 날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하여 가족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사오니, 주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족했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부모님께 잘못했던 일들이 많았음을 기억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가족들을 더욱 굳센 믿음으로 세워주사, 주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 경 봉 독 ----- 고 린 도 후 서 1 : 3 ~ 5 ----- 다 같 이

- 3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이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 4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 5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말 씬 ----- 위로의 하나님 ----- 말 은 이
기 도 ----- 말 은 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故)○○○님(장로, 권사, 집사, 성도)의 기일을 맞아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故)○○○님(장로, 권사, 집사, 성도)이 떠났지만 그 분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이 남아 있습니다. 긍휼의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로해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더욱 잘 믿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위로를 얻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찬 송 ----- 2 3 5 장 ----- 다 같 이

1.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거기서 영원히 영원히 살겠네
2.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앞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3.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나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4.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주 기도 문 ----- 다 같 이